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 '걸캅스'의 통쾌한 한 방



영화 '걸캅스' 주인공인 최수영·이성경·라미란(왼쪽부터)이 개봉을 앞두고 일부 누리꾼의 '여성혐오' 시선에 "영화는 영화로 봐주길 바란다"고 솔직하게 대응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주인공 성별 아닌 인물로 봐 달라”
평점 테러 등 여혐 공격에도 당당

배우 라미란과 이성경, 최수영이 영화를 통해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한다. 개봉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뜻밖의 시선'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주인공을 성별의 시선이 아닌 인물 그 자체로 봐 달라"고 답하고 있다.

9일 개봉하는 '걸캅스'(제작 필름모멘트)는 전직 열혈형사(라미란)와 신참 형사(이성경)가 디지털 성범죄 조사를 일망타진하는 수사극이다. 여기에 경찰서 민원실 직원(최수영)이 합류, 여성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악랄한 성범죄를 통쾌하게 잡아낸다.

영화가 개봉 전부터 주목받는 것은 최근 가수 승리·정준영 사건을 마치 '예언한 듯' 빼닮은 내용 때문이다. 지난해 촬영할 때만 해도 제작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탓에 오히려 현실감 높은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다. 연출자 정다원 감독은 "여성 형사 콤플렉스를 구성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뉴스를 자주 접했고 그만큼

만연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며 "극중 사건 해결 과정에 관객이 통쾌함을 느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걸캅스'는 여성들이 연대해 남성 범죄에 맞서는 내용, 예고편에서 짧게 드러난 남성 캐릭터 희화화 등으로 인해 일부 세력으로부터 영통한 여성혐오의 공격을 받는 이른바 '젠더 갈등'의 이슈에도 휘말렸다. 3월 여성 히어로영화 '캡틴 마블'이 당한 '평점 테러'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남성 투톱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판이하다는 점에서 '젠더 갈등' 이슈의 허상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

배우들은 이에 대한 발언을 거부하지 않는다. 최수영은 "현실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돕는 건 여성일 수도, 할아버지나 어린 동생일 수도 있다"며 "여형사가 주인공이라고 젠더 이슈의 관점으로 보려하지 말고 소영영의 모습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미란은 "영화는 영화로 봐주길 바라는 솔직한 마음"이라며 "개봉 전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범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내보내고 싶어 마음으론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방송사 상업성 제일주의? 어린이날 특집프로 실종

TV에서 어린이날 특집프로그램이 실종됐다. 이와 함께 각종 기념일 특집프로그램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요일이자 어린이날인 5일 각 방송사는 주말 편성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3일 KBS 1TV '거리의 만찬', 5일 MBC 모금방송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과 KBS 1TV '도전, 어린이 골든벨' '역사저널 그날', KBS 2TV '다큐멘터리 3일'만이 어린이날 특집으로 편성됐다. 이는 작년과도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작년에는 SBS '다이너코어' '런닝맨' 등 에니메이션, KBS 1TV 'KBS 창작동요대회' '노래가 좋아' 등 동요프로그램, MBC '나 혼자 산다' 등 어린이날 콘셉트를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대가 등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에도 방송가는 한산했다. 장애인의 날에는 MBC 모금방송 '봄날의 기적', KBS 2TV 단막극 '오늘도 안녕'만이 방송됐다.

이처럼 갈수록 기념일 특집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양상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처한 위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경영상 이유로 드라마까지 줄이고 있는 방송사들로서는 특집프로그램까지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이 활성화돼 특집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방송사가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하재근 평론가는 1일 "공공의 이익보다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제작 풍토가 아쉽다"며 "각종 기념일 특집을 비롯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때 만드는 건 방송사들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탈출구 없던 그 시절 '청춘들의 자화상'

바다로 간 영철이...군대로 간 병태
암울했던 현실과의 이별 키스 애트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6 1975년작 '바보들의 행진'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우리를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자 떠나자/동해바다로/신화처럼 숨을 쉬는/고래 잡으러.'

영철은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는 마침내 눈물을 삼키며 동해의 가파른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영태는 함께 가자는 병태를 말했다. 병태는 대신 입영열차에 올랐다. 병태는 떠나 줄 알았지만 달려와 애달게 자신의 이들을 부르며 열차 창문에 매달리는 영자와 이별의 키스를 나눈다.

하길중 감독의 1975년작 '바보들의 행

진'의 마지막 장면이다. 한국영화사에 깊은 인상으로 남은 또 하나의 명장면이 되었다. 하 감독은 영철과 병태라는, 당대 두 대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청춘의 절망을 그려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땠던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권력은 일련의 '긴급조치'로 시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휴교령이 잦았다. 머리카락마저 마음대로 기를 수 없어서 거리에서 장발단속이 끊이지 않았다. 청춘들은 귀밀머리는 경찰관의 가위날에 잘려나가기 일쑤였다. 오로지 관리와 단속과 통제만이 권력의 '소명'인 채로 "자유방임"의 사고는 터무니없던 시대였다.

하길중 감독은 이처럼 암울했던 현실에 맞닥뜨린 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두 청춘의 말과 몸짓을 빌었다. 희망을 찾아

나서고자 몸부림치지만 결국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춘, 영철은 고래를 찾아 동해바다로 뛰어들었고, 병태는 머리카락을 밀어 군대로 향했다. 하지만 고래는 '신화처럼 숨을 쉬고 있을 뿐, 현실이 될 수 없었다. 병태가 향한 군대라고 이들 청춘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을까.

하길중 감독은 이 같은 1970년대 청춘을 둘러싼 다양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 대상을 따라가는 핸드헬드 기법과 경쾌한 카메라 워크 등 신선한 방식으로 청춘의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녹록하지 않아서 무려 30분 분량의 필름이 검열에 잘려나가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예쁜 고래' 한 마리를 꿈꾸며 삼입된 송창식의 노래 '고래사냥'도 오랜 시간 들을 수 없는 금지곡이 되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하길중 감독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통해 1970년대 현실에 맞닥뜨린 청춘의 절망을 그리며 이면의 희망을 이야기했다. 입영열차 속 병태와 차창에 매달린 영자의 키스 장면은 한국영화사 명장면으로 꼽힌다. 사진제공 | 한국영화자료원

'프듀 101' 시즌4, 이번엔 글로벌 오디션

남 아이돌 구성...제2의 워너원 기대
무려 5년 장기계약...우려의 시선도

넷플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4번째 시리즈인 '프로듀스 X(엑스) 101'이 3일 첫 방송으로 3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워너원을 잇는 새로운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글로벌 무대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벌써 방송·가요계 안팎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프로듀스 X 101'은 '걸그룹(아이오아이)

→아이돌(워너원)→걸그룹(아이즈원)'이라는 '프로듀스 101'의 포맷 순서에 따라 남성 아이돌 그룹을 구성해 세계로 무대를 넓힌다. 그 과정을 국내 방송 채널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라이브채널 등 6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한다. 이에 글로벌 무대를 향한 확장(extension)이라는 의미로 프로그램에 'X'(엑스텐션·X-tension)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제작진은 방탄소년단처럼 새롭게 탄생하는 그룹도 빌보드를 목표로 음악적 실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출연자들은 물론 소속사와 사전 인터뷰를 거쳐 자체 검증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용하며 방송을 통해 불거질 수도 있을 잡음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덕분에 방송 시작 전인데도 반응이 뜨겁다. 출연자 예고 영상이나 사진 등이 온라인상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고, 일찌감치 팬들의 마음에 '저장'된 화제의 인물도 여럿 등장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놓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최종 데뷔하는 프로젝트 그룹의 계약 기간이 무려 5년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제작진은 5년의 계약 기간에 2년 반은 프로젝트 활동에 전념하고, 나머지 2년 반은 기존 기획사에서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연예인 표준 계약서상 최대 7년이라는 기간에 비급가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에서 자칫 "신인에게 자칫 지나치게 종속적인 조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아이오아이는 1년, 워너원은 1년6개월, 아이즈원은 2년6개월 동안 각각 활동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CJ ENM전략콘텐츠 사업부장은 "워너원이 전 세계적인 케이팝 열풍 속에서도 활동 기간이 짧아 안타까웠다"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투 유' 유재석·유호진 PD 손잡나

tvN 이적 유 PD '유 퀴즈...' 등장
새 프로 구상 한창...합작 가능성

'투 유' 유재석과 유호진 PD가 한 프로그램에 함께 등장하면서 향후 합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각각 '무한도전'과 '1박2일'로 MBC와 KBS를 대표하는 예능프로그램의 상징적 인

물이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더욱 크다.

이들은 4월30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만났다. 이날 유재석은 "화제의 인물을 인터뷰하자"며 연출자 김민석 PD의 요청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 유 PD를 카메라 앞으로 이끌었다.

이번 만남으로 두 사람이 합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방송가는 보고 있다. 유재석은 '유 퀴즈 온 더 블럭'



유재석(왼쪽)·유호진 PD

으로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 케이블채널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유 PD도 3월 초 KBS 자회사인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을 나와 tv

N을 운영하는 CJ ENM으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따라서 서로의 공동 무대인 tvN 채널을 무대 삼아 향후 함께 작업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1박2일'의 '스타 연출자' 출신 유호진 PD가 만들어낼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 밑받침이 되고 있다.

1일 tvN 관계자는 "유호진 PD가 새 프로그램 구상에 한창이다"며 "출연자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3

트와이스 사나, 일일 연호 언급 곤욕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사나가 일본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는 것을 언급했다. 곤욕을 치렀다. 사나는 4월30일 SNS에 "헤이세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 헤이세이가 끝난다는 건 쓸쓸하다"면서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함께 1일 나루히토 새 일왕이 즉위하면서 새 연호 '레이와'가 쓰이는 것을 말했다.

신현희와김루트, 데뷔 5년 만에 해체

히트곡 '오빠야'의 혼성듀오 신현희와김루트가 2014년 데뷔 5년 만에 해체한다. 하지만 두 멤버가 이를 둘러싸고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아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1일 소속사 측은 "신현희와김루트가 계약 만료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어벤져스4' 800만 관객 돌파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 8일째에 800만 관객을 동원했다. 1일 배급사 워너비즈니컬리아에 따르면 '어벤져스:엔드게임'은 실시간 티켓 발권 기준(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로 이날 낮 12시40분 누적 관객 800만5322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